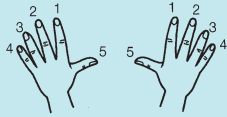




수화를 배워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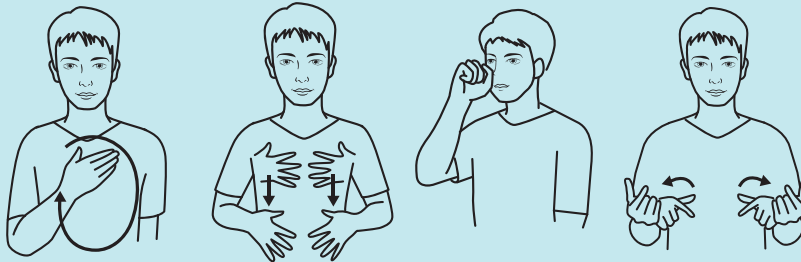


Tip

수화는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표정과 동작의 세기, 길이에 따라 나타나는 뜻에 차이가 있습니다. 음성언어에서 음의 고저, 장단 및 강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상대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표정과 동작 등으로 표현한다면 더 명확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수 서울아산병원 수화동호회

몸이 피곤하고 좋지 않다.



〈몸〉 왼손을 가슴에 대고 오른손을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인다.

〈피곤〉 양손을 가슴에 대고 힘이 없어 내린다.

〈좋다〉 오른주먹을 코에 댄다.

〈않다〉 양손의 1·5지를 세운 후 손목을 바깥으로 젖히며 고개를 젓는다.

올해도 더위가 심하다.



〈올해〉 양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가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서 동시에 위로 올린다.

〈도〉 오른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1·5지를 붙인다.

〈더위〉 양손의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벌려 펴서 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머리 양옆에서 동시에 두 번 상하로 흔든다.

〈심하다〉 오른주먹의 1·2지를 펴서 1지 옆면을 오른뺨에 댔다가 밖으로 힘주어 올린다.